

# 中 사드 보복에...광주·전남 기업도 시련

## 7월 수출량, 광주 소폭 늘었지만 전남은 감소 전환

### 자동차·가전 등 완제품 타격...농식품 6개월째 줄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유통·화학·식품·농식품 기업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등 광주·전남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수출이 대폭 감소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 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내놓은 '7월 중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출금액이 각각 1억2200만달러와 5억59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는 6.

7%에서 9.2%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전남은 21.6%에서 20.5%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국가별 비율이 준데에는 광주·전남의 수출 구조가 사드 역풍에 취약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화학 등 원자재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전남의 경우, 정치·사회적 영향을 덜 받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광주는 외부 상황에 따라 대중국 수출액이 들쭉날쭉하는 등 품목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사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단기간에 제재하기 어려운 공산품에

주목하기보다는 수입 조절이 쉽고 검역이 쉬운 농수산물에 주타깃으로써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 중국 농식품 수출현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월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감소한 8억 6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은 급증했지만, 한국과 중국 간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3월부터 작년 동월 대비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광주·전남 역시 7월 중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이 농산물의 호황으로 491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폭 감소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농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지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와 중동, 남미 등 수출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화된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흥영성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광주·전남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남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들의 대 중국 수출 전략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9.08 (+15.36)      금리 (국고채 3년) 1.76% (0.00)  
 ↑ 코스닥 656.53 (+2.24)      ↑ 환율 (USD) 1131.90원 (+4.40)



광주은행 봉사단 환경정화활동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지역사회봉사단은 지난 9일 오전 광주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들과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가을 정원 꾸미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는 '공원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 수출기업-내수기업 체감경기 9년만에 최대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격차가 올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지난 8월 수출기업의 업황BSI는 84로 내수기업(75)보다 9포인트 높았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조사기업 중 1800여개 제조업체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

수출기업은 매출액 가운데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은 수출 비중이 50% 미만인 업체를 가리킨다. 수출기업에는 전자, 조선업체 등이 많이 포함되고 내수기업에는 식료품, 음료, 목재·나무 등 업체가 들어간다.

올해 수출기업 업황BSI는 내수기업 업황BSI를 계속 웃돌고 있고 그 차이는 최근 10포인트 안팎을 나타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BSI 차이는 지난 4월 5포인트에서 5월 10포인트로 뛰었고 6월 11포인트, 7월 10포인트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이 수치가 대부분 0~4포인트에 머물렀고 최대치는 7포인트였다. 또 올해 1~8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차이는 월평균 8.4포인트로 2008년 월평균(9.3포인트)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불균형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온기가 내수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은 최근 '2017 인도네시아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전'(EPRE 2017)에 참가해 국내 우수 전력기자재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한국전력 제공>

## 한전, 인도네시아 전력기자재 시장 판로 개척

### 자카르타 에너지산업전 참가...928만달러 수출 상담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나라 우수 전력기자재의 판로 개척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전시장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광기영)과 공동으로 '2017 인도네시아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전(EPRE 2017)'에 참가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인도네시아 전기전력 산업전은 동남아 최대의 종합전기 전시회로, 금년에는 39개국 930개 기업이 참가하고, 2만여명이 참가했다.

한전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력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텍전기전자(주) 등 12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기술 및 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총 928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한전은 KEPCO Pavilion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실시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부스 임차비,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 소요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효과적인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해 맞춤형 전문 마케팅을 시행했다.

특히,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마케팅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 및 초대장을 발송해 상담기회를 높였는데 노력했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의 협력회사인 PT. JPI(JALADRI PRIMA INTER-TRADE)와 전시회 참여기업인 대우전기공업이 변전소 운영시스템 기술협력 및 판매에 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수출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수출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또 46개사 바이어 53명 광주 찾는다

### 오늘 DJ센터 수출 상담회...370만 달러 양해각서 체결

한국무역협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370만 달러(약 43억원)의 수출계약과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82개 업체가 참가해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중화권과 아세안권에서 초청된 46개사 53명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 상담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광주지역 전문무역사 노보인터내셔널은 러시아 아시아 트레이딩(Asia Trading)과 종이류, 차약 등 생활 소비재 제품 180만 달러 상당을 공급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광주시의 무역협회는 상담 매칭 초기 단계부터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의 제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제품구매를 희망하는 바이어와 정확한 매칭을 지원해 이번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지역사회봉사단은 지난 9일 오전 광주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들과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가을 정원 꾸미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는 '공원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자동차 부품 무역사인 코르스도 러시아 오토모토(AUTOMOTO)와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

광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하이솔루션은 일본 제이 넷(J-Net)과 2년간 110만 달러 상당의 물품공급 MOU를 체결하고, 라피네 제이는 인도 탄비 인터내셔널(TANVI International)과 수출계약 6억7000만 달러, MOU 30만 달러를 체결한다.

광주시의 무역협회는 상담 매칭 초기 단계부터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의 제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제품구매를 희망하는 바이어와 정확한 매칭을 지원해 이번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현대삼호중 노사 생산직 유급휴직 합의

### 일감 부족 해소·고용유지 교육책...내년 6월까지 2680명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사가 최근 일감 부족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해 생산직원의 유급휴직 시행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일감으로 인한 유급휴직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열린 노사간 별도 협의체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직원 2680여명은 오는 10월16일부터 내년 6

월24일까지 1인당 5주씩 유급휴직에 돌입한다.

유급휴직은 선박 인도에 차질이 없도록 차수당 300~400명씩 총 7차수로 나눠 진행되며, 직원들의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보전받게 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유급휴직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단계-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한국방수협회 연구 부서 2009-24호에 따라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번져 붙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니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5202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